



조계종 화엄회는 3월 10일 미래지향적 종단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왼쪽부터 김응철 교수, 법진, 일문, 광조, 도가, 일법 스님, 황찬익 차장. 사진=유철주 기자

“더 강력한 변화 필요하다”

조계종 화엄회 ‘미래지향적 종단설계’ 정책토론회 개최 조직·재정관리·인사 등 각 분야 문제 지적, 대안 내놔

“조계종 중앙총회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단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최고 대의기구면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해왔나 되돌아 보아야 한다”(종회의장 법등 스님)

조계종 화엄회의 ‘미래지향적 종단설계’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화엄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총회 의원을 비롯한 교구 본사의 대종, 교역직 총무원, 재가불자 등 5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책설문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 이날 화엄회에는 총회의원 중앙총무직원 등 교계 총·재가자 50여명이 2층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최근의 조계종 중앙총회가 거듭되는 종권다툼으로 권력화 세속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인지 참석자들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회를 경청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모임 차원 최초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

민추본 도가 스님, 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 전국비구니회 일법 스님, 황찬익 총무원 기획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일법 스님은 조계종 조직관리와 관련해 “개혁종단 이후 비구니스님들 종회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타종교와 같은 발전을 가져오려면 비구니스님의 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찬익 차장은 “1994년 이후 구축된 현재의 조직구조는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고 “올해 초 중앙총무기관 조직개편이 됐지만, 현재 중앙조직은 더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직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교구본원제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야 하며, 단순히 인사권 재산처분권 등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종도 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재정분야와 관련해 “오래전에 정해진 분담금의 규모가 현재 사찰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개별 사찰들의 부담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문 결과에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종단의 수익사업을 찬성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종단 소유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가 스님은 “종단에 부동산이 많아도 유효한 토지가 많지 않고, 수익을 내려면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종단은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도 “포교가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 종단 직영포교당을 세우면 직영사찰도 늘어나고, 분담금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사관리 정책 분야에서 법진 스님은 “종도들이 인사권자가 친소관계로 인사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설치를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종단이 변화를 바라는 종도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스님은 “이전과는 달라진 종단의 노력에 비해 사부대중이 여전히 조계종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종도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화엄회 대변인 법진 스님은 “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종단발전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새 총무원장 이달내 선출”

천태종 총무원장직대 춘광스님 기자간담 삼광사 노조 “인정못해”…종단 변화 모색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의 사임에 따라 3월 1일부터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춘광스님(사진)이 6일 관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단의 현실과 향후 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춘광 스님과의 일문 일답.



▲윤덕 스님이 장기간에 걸쳐 총무원장직을 수행해 왔기에 윤덕 스님의 사임이 종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천태종은 종정 중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전임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던 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스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총무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다른 종단들이 상징적인 큰 어른으로 종정스님을 모시는 것과는 달리 천태종은 종정 중심 체제이다.

총무원장의 선출은, 종정스님이 지명하면 스님 15명과 재가불자 1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중앙총회의 인준을 거쳐 다시 종정스님이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

삼광사 주지에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가?

–주지 임명도 천태종은 종정스님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그것도 종정스님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이 현 삼광사 주지스님과 총무원들 및 신도회 간부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빚어진 만큼 사부대중을 원만히 아우르고 한 식구처럼 대할 수 있는 스님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삼광사 노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현재 삼광사는 유급 총무원이 약 70명 정도 되고 신도회 간부만 해도 2천명이 넘는 대규모 사찰이다. 이런 큰 규모 때문에 주지 스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총무원들과 신도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주지가 임명된다면 노조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조원이 7명 정도 되고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게 종단의 뜻이다.

▲향후 천태종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변화와 개혁을 암중모색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 종단의 개혁과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앞으로 지켜봐 주기 바란다.

김주일 기자

재난구조봉사단 천태종 4월에 발족

천태종은 긴급재난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재난구조 봉사단을 4월중에 발족한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산하에 발족될 재난구조 봉사단은 전국 주요광역시별로 지부와 지회를 설립한다. 봉사단의 총재는 총무원장 스님이 단장은 사회부장 스님이 당연직으로 맡게된다. 또한 각각 5명씩 모집할 전국 각 지부와 지회에서 활동할 봉사단원들은 해병대와 공수부대, UDT 등 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한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봉사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재난 등이 발생되면 국제 NGO 단체에 파견된다.

김주일 기자

도법·금강 스님 등 ‘…대중공사’ 출범 논의

조계종 소장과 스님들이 3월 8일 대구 관운사에서 모임을 갖고 종단 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가칭·이하 대중공사)’ 출범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삼광사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조계종 소장파 스님 김강선 지도 진오 종호 혜안 대안 하립 통솔 종선 수안 만초 스님(무순) 등 40대 전후의 종단 소장파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중공사의 관계자는 “앞으로 수차례 더 준비모임을 갖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영배스님 東大이사 승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 결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7일 학교법인 동국대가 제기한 영배스님 ‘이사 취임 이행 심판 청구’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결과,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승인 이행요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16일까지 이사 취임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4부는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이사승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정행위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남동우 기자

종교사학법인 동일종교인 개방이사 가능

교육부 개정위, ‘건학이념 구현 할 수 있는자’ 한정

종교 사학법인에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는 3월 7일 열린 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새로 도입된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자’로 한정하는 등의 개정시안 내용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개정 시안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방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법도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를 제출할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과 관련, 대학은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전문대는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회 회의록도 회의 뒤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석달 동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개정위원회 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중 순 입법예고하고 올 5월 말까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조동종 임원회의 개최

조동종 임원회의가 3월 8일 조동종 총무원에서 열렸다. 종정 지명 스님 등 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4월 5일 제 2회 조동종 차례제 개최 △5월 중순 조동종 발전지에 종조인 동산양계산사비 건립 등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장조(국민장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t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회의가 소망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